

노 재 승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 연구논문

‘서른 즈음에’의 조형적 표현에  
관한 연구

-김광석 음악을 통한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정 혜 경

‘서른 즈음에’의 조형적 표현에  
관한 연구

-김광석 음악을 통한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노재승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정 혜 경

# 인 준 서

정 혜 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8년 발표한 본인의 작품 [김광석 리포트] 를 통하여 작품의 전개과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과 그 제작 방법에 관한 연구 분석한 것이다.

사회와 예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과학문명, 기계문명, 물질문명으로 상징되어지는 현대사회는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 하게 되면서 궁극적인 인간 삶의 가치 또한 변모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기능성이나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도리어 제도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는 인간을 더욱 구속하게 되고 인간의 고유한 개체성을 획일화시켜 집단적 사고 성향이 커지게 됐다. 그러나 획일화된 사고 패턴은 현대인에게 오히려 일탈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심리적 불안과 정신혼란으로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본인의 작품은 현대인의 일탈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 바탕에 두어 조형화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몽타주형식의 이미지들은 일탈의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실제 존재했던 인물 ‘대중 가수 김광석’과 그의 노래 ‘서른 즈음에’를 통하여 일탈의 새로운 가상세계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에 대한 제작과정과 내용에 대해 서술하고 어떠한 조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본 논고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인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일탈의 이미지로 형상화 되는지 모색하였으며 음악을 통한 예술적 접근으로 인간이 느끼는 현실과 꿈, 실재와 허구 사이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의 범주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문에서는

1. ‘서른 즈음에’ 대중가요를 통한 일탈이미지를 사회적, 철학적 접근을 통한 정체성의 모색과 일탈을 작품화한 [김광석 리포트] 에 대한 연구 배경으로 서술하였다.
2. 가상세계를 통한 영상작품과, 설치된 전시공간의 이론적 설명과 음악적 일탈이미지에 대한 의미와 특징들을 서술하였다.
3. 본인의 작품 [김광석 리포트]의 제작기법과 재료, 제작 의도를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본인은 음악적 일탈의 모색과 본인의 주된 몽타주기법을 통해 작품에 대해 더욱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인의 작품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이론적 배경 .....	3
2. 형태적 근거 .....	6
1) 포토몽타주 .....	6
2) 가상공간 .....	8
3. 작품 분석 .....	14
III. 결론 .....	27

참고 도판

참고 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1】 세계일주, 스테인리스 스틸, 170X50X150, 2007

【작품2】 Touch me, 혼합재료, 160X70X120cm, 2008

【작품3】 거리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20X15X3, 2007

【작품4】 김광석 보고서, Single channel video. 9min. 30sec. 2007~2008

【작품5】 Chaos, Single channel video. 3min 20sec. 2008

## 도 판 목 차

**【도판-1】** 2008 김광석 리포트전 , 대안공간 갤러리꽃

**【도판-2】** 2008 김광석 리포트전 , 대안공간 갤러리꽃

**【도판-3】** 2008 김광석 리포트전 , 대안공간 갤러리꽃

# I. 서론

예술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직, 간접적으로 현실의 변화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해 왔으며 예술가와 그의 작품은 사회의 가치나 이념에 큰 영향을 받았다. 예술은 예술가와 대중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예술가와 대중을 상호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회적 산물이며 예술은 인간에 의하여 창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술이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예술이 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상호 관계 속에서 외적 현실과 내적 현실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존재 목적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물질적, 제도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정신적 갈등과 방황은 현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구문명의 급진적인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습관과 사상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고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구성원들의 그러한 갈등은 해소되거나 표출되지 못하고 불만감으로 누적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 주체의 주관적 평가와 그 원인은 갈등의 측면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나 그러한 주관적 평가는 그가 처한 객관적인 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억압, 현실과의 타협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간의 내적 갈등과 그로 인한 일탈의 욕망의 본질을 다루고자 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는 인간을 더욱 구속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인간의 고유한 개체성을 획일화시켜 집단적 사고 성향을 고착화시킨다. 획일적 사고 패턴은 현대인에게 오히려 일탈하고자 하는 욕구

의식을 심어주어 심리적 불안과 정신혼란으로 위기의식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작품의 형성 배경이 되고 있는 인간의 내면에서 현실과 소통을 구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악적 일탈을 통한 이미지 연구하였으며, 본인의 작품 [김광석 리포트]를 통해 제한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공간에 존재하는 대상을 본인의 이미지로 변용된 가상공간을 재현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

이를 토대로 제작한 본인의 작품에 대해 이론적으로 구체화하여 작품을 제작하여 창의적이고 조형적인 연구 과정을 밝혀 본인의 작품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 II. 본 론

### 1. 이론적 배경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20세기 말 정보통신혁명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는 그 어떤 시기보다 급속히 변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비해 일상인의 모습은 돌아가는 하나의 톱니바퀴 부품처럼 지루한 생활을 이어나간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유린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다시 불안해하며 그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적인 어떤 것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시대의 일상의 생활은 현대성의 이면이고 시대정신이라는 헤르만 브로흐(Herman Broch)<sup>1)</sup>의 말처럼 이러한 변화와 개인의 일상은 결코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고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획일화된 경쟁사회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과 동시에 그 범주에서 이탈할까봐 전전긍긍한 현실적 모습의 불일치로 불안정한 삶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본인은 [김광석 리포트]를 통하여 일탈하려는 현대인의 욕구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나이라는 한계지점을 찾아 대중가요 ‘서른 즈음에’를 감상자의 중심으로 풀어가면서 일탈의 욕망을 상징화 하였다.

그러면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한계란 정해진 어떤 범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인간 자체의 존재가 한계

---

1) 헤르만 브로흐(Herman Broch, 1886.11.1~1951.5.30) 오스트리아의 소설가. 최초의 장편 3부작 《몽유병자들》로 작가로서의 지위를 굳힌 후, 대표작 장편 《베르길리우스의 죽음》, 단편집 《죄 없는 사람들》 등의 작품을 남겼다.

가 될 수 있으며 현대인의 삶에서 나라는 객체는 현대사회에서도 떨어져서 자유로워지기 힘들며 이로 인해 자아분열 현상은 더욱 가중된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도래로 기계에 의한 대량생상이 이루어지면서 반복이 지닌 평범하고 비개성적인 특성을 인간의 모습으로 반영되며 반복을 통해 개체는 그 개체가 지닌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흡수되어 버림으로서 자아에 대한 갈등을 갖게 된다. 현대사회가 갖는 의미와 함께 인간은 도시와 사회라는 울타리에 벗어나려고 하지만 갈망할 뿐 자신이 인정한 자신의 안정된 삶의 방식을 적응 이라는 이름으로 흡수하면서 반복과 한계 속에서 순종적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의 강요된 억압과 체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모든 사고의 중심과 행동을 보편적인 대중과 전체를 맞추다 보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sup>2)</sup>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한번쯤은 한계를 느끼고 일탈을 꿈꾸고 일탈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게 된다. 본인은 서른이라는 나이에 접어들면서 인생에서 꿈보다는 현실의 무게가 크게 느껴짐을 경험하게 되고 우연히 ‘서른 즈음에’를 다시 듣게 된다. 이를 계기로 김광석의 음악을 다시 듣고 일탈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가수 김광석의 의미를 헤아려보고 그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변안해봄으로서 대중문화와 시각예술의 접점을 찾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또한 현실이라는 장에 참여하길 강요당하는 것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세대적 정체성으로 받아 들여졌다. 대중가수 김광석<sup>3)</sup>의 ‘서른 즈음에’곡을 통해 본인의 자의식을 새롭게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목에서 보이듯이 일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느낄 수 있는

---

2) 김종호, 「역사철학」, 사상계사, 1963, p83

3) 김광석 (1964.1.23 대구~1996.1.6서울) 대중음악 작곡가, 가수 : 진솔한 목소리로 서정적인 발라드 및 1970년대 모던포크의 맥을 잇는 포크풍 노래를 주로 불렀다.

인생이 표현되어 있다. 가사에서 보이듯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나타나며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을 마치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그려 나간다.

‘서른 즈음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대는 실패를 보아도 두렵지 않은 시간이며 꿈을 향해 뛰어가다 실패를 보아도 두렵지 않은 나이이다. 하지만 서른 즈음 되면 인생의 방향을 정해 놓고 결혼, 일, 사랑 등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서른 즈음이다. 본인에게 나이 서른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인생을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다시 듣게 된 이 곡을 통해 김광석을 다시 배웠다. 본인이 느끼는 과도기적인 상황은 일탈이라는 지점에서 음악을 통해 찾게 되었다. 본인의 일탈을 숨기고 김광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형태적 표현 방식으로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현실과 꿈, 실재와 허구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이 본인의 예술적 접근으로 진행되었다. 혼돈스러운 현실에서 가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와 그의 노래가 일탈이라는 해방구를 제시해 주었고 일탈의 이미지표현으로 바이크와 가상세계를 재현한다. 바이크는 내적으로 단순히 재현의 대상이 아닌 일탈의 상징물로 답답한 현실에서 질주하고 싶어 하는 욕구이자 외적으로 김광석의 자유의지를 대변하는 모뉴먼트(Monument)로 관찰되질 수 있다. 또한 80년대와 90년대의 감성을 대변했던 가수 김광석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과도기적인 세월을 경험한 세대와 김광석을 열광했던 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아 대중문화와 조형 예술의 접점을 찾아가 세대를 초월해 남녀노소 서로 간에 소통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서른즈음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뽀은 담배연기처럼/ 작기 만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속엔/ 그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간다/ 머물러있는 사랑인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 1. 형태적 근거

### 1) 포토몽타주

아놀드 토인비(Toynbee, Arnold)<sup>4)</sup>의 말처럼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 시대를 넘는 새로운 도전은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예술은 그 시대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예술은 인류의 역사와 삶과 함께 변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술작품은 그런 시대의식을 작가의 현실적 상황이나 경험과 관련지어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예술은 현실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작가의 의식을 타인과 공유하는 일체의 과정인 것이다.

사진은 1873년 프랑스의 화가 다게르(Daguerre1787~1851)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명되었다. 그 후 회화와 사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포토몽타주(photo montage)<sup>5)</sup>이다. 필름에서 직접 이미지를 분리, 합성

---

4) 영국의 역사가·문명 비평가(1889~1975). 결정론적 사관(史觀)에 반대하여, 인간 및 인간 사회의 자유 의지와 행위에 의하여 역사와 문화가 형성됨을 강조하였다. 저서에 《역사의 연구》 12권과 《시련에 선 문명》, 《역사가가 본 종교관》 따위가 있다.

5) 포토 몽타주(photo montage)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일. 단편적인 장면을 예술적으로 구성하는 이 방법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영화 예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해서 인화하는 기법을 ‘몽타주’라고 구분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이러한 몽타주 기법을 컴퓨터로 옮기면서 가상의 공간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리 합성하여 응용하고 있다. 포토몽타주(photo montage)를 이어붙인 2D 애니메이션 <작품5>는 <작품2>와 메탈드로잉 연작 <작품3>을 각각 촬영한 사진을 가상세계의 배경으로 표현했고, 김광석이 기타바이크 <작품2>를 타고 어딘가로 일탈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포토몽타주 속의 재료로 쓰이는 하나의 사진이미지들이나 컴퓨터의 가상 공간 속 이미지들은 원래 사진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그러한 사진 이미지들의 집합체인 하나의 포토몽타주 작품에서는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기록성이나 혹은 그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현장성과 같은 사진만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 놓치게 되는 재료의 직접성과 물리적 접촉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콜라주 형식을 이용하고, 또한 포토몽타주는 기존 현실의 반영인 사진 이미지들을 조합하여 현실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또 하나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낸다.

현실을 비추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바이크 <작품1>는 본인의 바이크형태를 몽타주기법으로 제작되었다. 큰 외형은 바이크의 형태지만 외형에서 인터뷰를 하며 다녔던 거리의 이미지를 함축함과 동시에 서사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화하여 조형화하였으며 세계일주를 꿈꾸던 가수 김광석을 위해 제목을 ‘세계일주’로 정하였다. 세계일주는 김광석을 꿈꾸기도 하지만 본인의 노마디즘(Nomadism)<sup>6)</sup>적인 감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작품3>의 형태적인 표현은 현실에서의 현재의 음악을 듣고 있는 이미

---

6) 노마디즘(Nomadism)는 특정한 방식이나 삶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살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노마드, Nomad)에서 나온 말이다. 유목주의라고도 한다.

지 상황표현이다. 본인이 현재 생활하는 공간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장식은 생략하고 컴퓨터로 합성하여 몽타주 기법으로 부조로 제작하였다.

기타바이크 <작품2>의 경우도 몽타주기법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량 생산물인 5대의 기타오브제를 자르고 이어 붙여 콜라주와 몽타주기법을 사용하여 현실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본인의 일탈적 감성을 극대화 하였다. 또한 시대의 감성을 나타내고 있는 기타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기타의 왜곡으로 본래의 이미지가 모호해지는 환영을 주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대중문화의 산물인 대량생산에 의한 소비문화의 한가지인 오브제를 통해 연구하는 것은 팝아트와 같은 맥락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팝아트에 나타난 오브제는 대량생산된 제품의 반복적인 이미지를 복제해 작가의 개인적인 방법론으로 재현을 한 것이다. 복제라는 특징으로 팝아트는 무한정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의 연구는 대량생산물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브제를 몽타주 기법으로 새롭게 하나의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대량생산물을 해체하고 재조립함으로써 작품의 원본성을 가지고 있다.

## 2) 가상공간

불교에서 ‘육근(六根)<sup>7)</sup> 즉 인간의 감각과 의식을 생기게 하는 근원은 6가지가 있다고 여겨왔다. ‘눈, 코, 귀, 혀, 신체’ 그리고 6번째가 ‘의(意)’이다. ‘의(意)’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해석되어진다. 이것은 가상현실을 생각할 때에도 중요하다. 가상현실은 단순하게 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

7) 육근(六根)은 불교에서 육식이 그대상이 되는 육경(六境)에 대하여 인식작용을 일으킬 경우의 그 여섯 가지 인식 기관, 안근(眼根), 이근(耳根), 비근(鼻根), 설근(舌根), 신근(身根), 의근(意根)을 이르는 말이다.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그것을 어떻게 부풀려 나가는 것인가가 본질이다.

가상공간은 개념적으로 컴퓨터에 의해 유지되며 컴퓨터에 의해 접근 가능한, 그리고 컴퓨터가 만들어 내는, 다원적이고 인공적 또는 ‘가상적인’<sup>8)</sup> 은유의 공간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대중가요라는 매개체를 통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군중의 소통은 미디어가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통을 원활히 해주고 있다. 그러한 소통은 순간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음악적 일탈을 보여주고 있는 [김광석 리포트]전시는 세상의 타자와의 소통을 하고자하는 자아의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본인의 작품은 가상의 공간은 재현된 형상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된다.

현실에서의 가상공간은 [김광석 리포트]는 전시 공간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시공간을 찾기 위해서도 재현의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김광석의 음악은 본인 인생의 돌파구를 만들어 주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 철저하게 본인의 가상인물로 재현했다. [김광석 리포트] 전은 4월에 열렸는데 전시기간을 4월을 선택한 이유도 현실에서 벗어나 일탈을 하게 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봄이라는 희망찬 앞날이나 행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도 되겠지만 본인은 4.19 혁명이라는 사회적인 현실에서의 봄을 말하기 위해 4월을 선택한 이유였다.

대안공간 갤러리 꽃은 전시공간이 밀집해있는 인사동 거리가 아니며 홍대 앞에 학원가에 위치한 작은 지하공간이다. 홍대 앞은 현실에서 젊은이들의 모임장소로 많은 이들이 이요하고 있으며 각종 클럽과 여러 문화행사를 활발히 하고 있다. 대안공간 갤러리 꽃을 선택한 이유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있었으며 음악이라는 공통 화제를 통해 세대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소통하려는 목적이었다. 대안공간 갤러리 꽃을 선택한 또 하나의

---

8) 이봉재, 김상환, 이기현, 오종환, 이승중, 정호근, 「매체의 철학」, 나남출판, 1998, p193

이유는 소극장에서 1000여회 공연을 기록하며 관객과 호흡하려했던 김광석의 의지를 대변하며 본인의 의지를 김광석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 주려 한 것이기도 하다.

대안공간 갤러리 꽃은 두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있다.(도판-1) 메인 전시공간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일탈의 재현 공간이 된다. 갤러리로 들어서는 순간 ‘서른 즈음에’ 편곡된 곡이 울려 퍼지고 <작품4>의 영상이 한쪽 벽면에서 나온다. 양쪽의 벽면에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건물들이 드로잉이 되어있다.(도판-2) 그 거리의 드로잉 안에 또 다른 <거리에서>스테인리스 스틸 부조와 <작품3>의 드로잉이 설치되어있다. <작품3>는 또 다른 거리가 투영되어 부조화 되어있고 부조 안에 본인이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가 투영된다.(도판-3) <작품4>영상과 거리에서의 부조 앞에는 일탈을 대변하는 바이크 두 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설치가 되어있다.

두 대의 바이크는 현실을 의미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작품1> 바이크와 과거를 의미하는 <작품2>바이크다. <작품2>작품 뒤에는 바이크가 지나온 흔적을 보여주는 낙엽이 오브제로 쓰인다. 낙엽은 봄과 상반되는 이미지로 지나버린, 지나간, 현실을 이미지이며 떠나간 김광석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그런 반면 <작품1>바이크의 경우 오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봄이 현실의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해 <작품2>와 상반되게 어떠한 오브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작품1>의 경우 현실 공간이 투영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여 본인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관객을 비추게 만들었다. 그것은 감상자를 일탈의 도구로 자연스럽게 들어와 일탈의 재현된 공간에 들어오게 한다.

메인 전시장을 지나 계단이 있는 작은 공간이 하나가 있다.(도판1) 그 공간은 현실에서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는 통로가 된다. ‘서른 즈음에’ 를 느

리게 편곡하여 잔잔히 흐르게 하고 그 공간은 과거의 현실이 현재의 삶으로 재현된 공간이다. <작품4> 영상이 공간 안을 가득 채우는데 그 영상을 통해 잊혀진 기억을 보여준다.

<작품4>는 인터뷰를 통한 다큐멘터리로 김광석 팬클럽 멤버, 작곡가, 시나리오 작가 등을 섭외하고 김제동, 신은영, 유민호, 이보성, 연영석 등 김광석의 동세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를 인터뷰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리서치를 통해 재구성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인터뷰의 내용은 김광석 음악성과 음악을 ‘수용’<sup>9)</sup>한 입장에서의 이미지와 대중음악이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물음을 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세대가 느끼는 나이 서른에 관한 상황을 진솔하게 인터뷰하고 편집하여 표현하게 된다.

김광석의 음악은 ‘그날들’, ‘광야에서’, ‘잊어야한다는 마음으로’, ‘거리에서’, ‘서른 즈음에’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음악은 가상세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초반부 김광석 LP로 과거로 들어가게 하는 음악은 ‘그날들’이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던 김광석과 80년대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연결 고리가 되어 준다. ‘광야에서’는 이념을 이해하고, ‘잊어야한다는 마음으로’를 통하여 현실의 어두운 상황을 김광석의 자살로 보여준다.

---

9) 수용미학의 대표적 이론가 야우스(Hans Robert Jauss)와 이저(Wolfgang Iser)는 수용미학이야말로 소통에 의한 페러다임을 변화시키며 소통사회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용미학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까지 독일, 영국, 미국 등지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된 문학연구의 한 방법론이다. 1967년“문학작품의 성립에 있어 독자도 상당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야우스의 ‘문예학의 도전으로서의 문학사’라는 논문에서 시작한 이후 독일과 영미권에서 여기에 의견을 표하지 않는 논문이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야우스와 이저는 수용미학의 대표적 이론가로서 독자를 문학연구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관점을 같이 하지만 연구의 핵심은 달랐다. 문학은 역사성을 중시하는 야우스는 7가지 명제를 제시하며 그것을 근거로 문학사의 새로운 방법론을 주장하고, 문학작품을 그것을 낳게 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예술의 본질을 모두 포함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저는 독서의 현상학적 이해를 중시하여 문학 작품 자체의 효과 구조와 과정으로서의 독서행위를 중시한다. 이저의 주장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내포된 독자’와 ‘독서과정’에 대한 것이다. 박주영,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본 쉴러의 미이론>, 【예술문화 연구】, 12권, 단일호(서울대학교 예술문화 연구소, 2002), p12, 24~27

‘거리에서’는 본인을 표현하려는 이미지를 김광석을 통한 이미지로 나타낸다.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공간의 이어주는 음악으로 ‘서른 즈음에’ 곡을 사용한다. 그 곡을 통해 빠르게 돌아가는 현실에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유린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다시 불안해하며 그 일상으로 되돌아 갈수 밖 없는 여운을 남기고 가상세계는 현실로 돌아온다. <작품4>는 수용자에게 일시적인 표현이 아닌 시간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가상의 세계에 대한 재구성을 디지털을 이용하여 기억과 허구의 경계를 교묘하게 교란시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 <작품5>는 일탈을 상징화한 바이크와 다큐멘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일상에 얽매여 있는 삶에서 일탈해 이상적인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의 제목처럼 입을 벌려 노래하며 지친 일상의 삶에서 좀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욕망을 음악과 함께 형상화했다.

이러한 가상공간은 작품을 연결하는 표현으로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미지를 표출, 표현하는데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탈을 찾는데 중요한 표현양식이 된다고 생각한다.

### 3. 작품 분석



【작품1】 세계일주

【작품1】 세계일주

재 료 : 스테인리스 스틸

크 기 : 170X50X150

제작년도 : 2007

제작방법

- 1)형태와 문양을 드로잉한 후 도면작업을 거쳐 스테인리스 스틸판과 파이프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용접으로 조립한다.
- 2)엘보를 이용하여 바이크의 바퀴두개를 제작하여 조립한다.
- 3)마감처리는 수작업으로 연마하여 광택처리 한다.

본인이 서른이라는 나이에 선물했던 스쿠터를 타고 이곳저곳 누비며 달리고 싶어 하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작품이다.

스쿠터의 외형은 본인의 바이크 외형을 재현함으로써 노마드(Nomade)적 감수성을 상징화 하였고 바이크 외부의 표현은 거리를 몽타주 기법으로 바이크가 지나간 흔적을 표현 하였다. 서른즈음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를 다시 듣게 되고 그 곡을 접하면서 현재에 놓여진 서른이라는 상황에서 일탈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김광석을 다시 배우면서 1996년 학전 공연을 접하게 되고 현실에서 일탈을 하고 싶은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 공연에서 김광석은 나이 마흔에 오토바이를 하나사서 세계일주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가상의 체험은 작품을 형상화는 모티브가 된다.

이 작품은 [김광석 리포트] 시리즈 중 처음으로 구상된 것으로 본인의 서른이 된 현재의 상황에서의 일탈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 시킨 작업이다. 또한 자유를 찾아 떠나고자했던 김광석의 자유의지를 대변한기도 한다.



【작품2】 Touch me

【작품2】 Touch me

재 료 : 혼합재료

크 기 : 160X70X120cm

제작년도 : 2008

제작방법

- 1)두 대의 스쿠터를 절개한 후 한대의 스쿠터에서 앞 핸들과 앞바퀴를 꺼내고 다른 한대에서 앞바퀴를 꺼내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퀴와 핸들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 2)5개의 기타를 그려진 도면위에 재단을 한 후 기타 안쪽에 나무를 넣어 보강을 한 후 핸들과 바퀴를 넣어 형태를 만든다.
- 3)핸들과 기타사이에 소가죽으로 마무리를 하고 바이크 발판에는 기타의 손잡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본인에게 서른은 꿈과 희망을 논하기보다는 사회와 타협하는 나이로 다가오게 된다. 기타라는 오브제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감정을 상징화 한다.

기타는 김광석을 대변하는 ICON이기도 하지만 70~80년대에는 기타하나만으로 젊음을 대변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시기를 서른 이전으로 표현하였다. 과거의 순수했던 시대로 돌려달라는 의미에서 【작품2】를 제작하였다. 서른 즈음되면 사회의 제도권 안에 들어와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야한다. 현재를 잘려지고 분해된 기타로 표현하였고, 기타로서 생명보다는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변해버린 기타 바이크는 순수했던 과거로 돌려달라는 상징성과 기타로 튕겨달라는 의미에서 'Touch me'제목을 사용하게 되었다.





【작품4】 거리에서

**【작품4】 거리에서 (연작 15점)**

재 료 : 스테인리스 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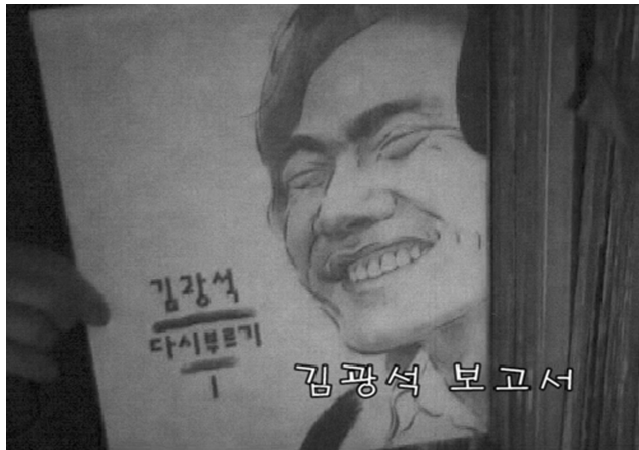
크 기 : 20X15X3cm

제작년도 : 2007

제작방법

- 1)형태와 문양을 드로잉 한 후 도면작업을 거쳐 스테인리스 스틸판과 파이프를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용접으로 조립한다.
- 2)마감처리는 수작업으로 연마하여 광택처리 한다.

김광석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면서 체험하며 분석하고 연구한 본인의 감성에 관한 리포트이다. 거리의 연작들은 김광석의 ‘거리에서’ 음악처럼 거리에서 이루어진 본인의 서른을 담았다. 인터뷰를 하기위해 만났던 장소, 시간, 음악을 들었던 공간을 드로잉 한 것을 컴퓨터 안에 사진과 이미지를 합성하여 단순화 시킨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에 복제하여 레이저 커팅으로 라인드로잉을 하고 그 형상의 면면들을 조금씩 뒤로 밀고 앞으로 당기면서 철판드로잉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작품4】 김광석 보고서

**【작품4】 김광석 보고서**

재 료 : Single channel video

시 간 : 9min. 30sec.

제작년도 : 2007~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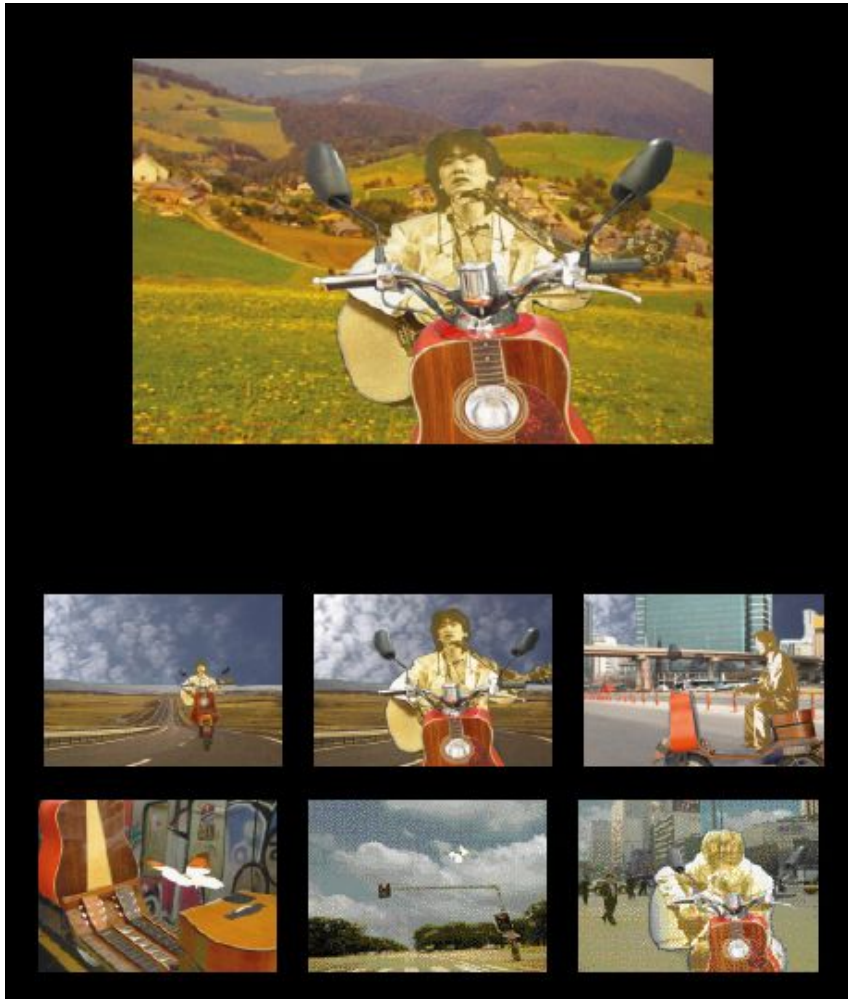
제작방법

- 1)김제동, 신은영, 유민호, 이보성, 연영석을 인터뷰.
- 2)인터뷰 내용을 프리미어 프로그램1.5로 편집한다.
- 3)음악과 김광석 사진을 프로그램에서 편집하고 자막을 넣어 영상 제작한다.

**【작품4】** 은 김광석의 ‘오마주’ 형식을 띄고 있는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김제동, 신은영, 유민호, 이보성, 연영석 등 김광석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들로부터 인터뷰를 따고 이를 편집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이다. 김광석 팬클럽 멤버, 작곡, 시나리오 작가, 가수, 프로그래머, 문화운동가, 개그맨, 김광석의 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일 년 동안 인터뷰를 가졌다.

본인은 김광석 세대도 아니며 그 시대에 그의 노래를 열광하지도 않았는데 ‘서른 즈음에’ 라는 언어를 접하면서 김광석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자료를 리서치 하면서 음악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들을 찾아 나서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어떤 나이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삶에서 잊히고 사라져가는 감성들을 현실로 재생산하길 원하는 것을 느꼈다. 또한 예술과 음악이 관객과 소통하는 공통점 안에서 작고한 아티스트 김광석의 음악은 세대를 막론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극 시켰다.

영상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팝 아이콘으로서의 김광석의 의미를 헤아려보고 과도기적 상황을 거친 40대들로부터 30대에 이른 본인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변안을 위해서 김광석의 음악적 행보와 사회적인 과도기인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서 민주화의 기점이라고 보이는 1990년대까지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용하게 된다. 과도기적인 시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서른이라는 시점을 직간접세대들이 경험한 인터뷰를 인용하게 되고 김광석의 음악이 본인에게 일탈의 해방구가 되어줄 줄을 나타내는 영상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본인은 ‘서른 즈음에’ 음악을 새롭게 곡만을 가지고 편곡하고 인터뷰대상자의 인터뷰 안에 베이스로 편곡된 곡을 사용한다. 편곡된 곡은 20대에 가졌던 희망을 이야기 하듯이 맑고 투명하게 피아노 소리로 시작된다. 1절 후렴부터 베이스기타로 낮은음을 극대화시켜 현실의 본인이 고민을 표현하였고 2절 도입부분 부터 인생에는 희로애락(喜怒哀樂) 있듯 희망의 메시지를 담듯이 곡의 도입부처럼 맑은 피아노 연주곡으로 변화시켜 대중이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작품5】 Chaos

## 【작품5】 Chaos

재료 : 단 채널 비디오

시간 : 3min 20sec.

제작년도 : 2008

### 제작방법

-Touch me와 김광석 사진을 스틸사진 카메라로 한 장씩 움직임을 구분하여 촬영한다.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을 다시 프레임별로 콤마를 맞추어 촬영한다. 배경은 사진을 이용한다.

-프리미어 프로그램1.5에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편집한다.

편곡한 음악과 김광석 사진을 프로그램에서 편집하고 자막을 넣어 영상으로 제작한다.

Chaos는 혼돈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뜻은 ‘입을 벌리다’로, 이것이 명사화하여 ‘깜깜한 텅 빈 공간’을 의미하게 된다. 본인은 원뜻 ‘입을 벌리다’로 착안하여 제목을 만들었다. 김광석이 일탈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욕망을 대리인으로 자신이 불렀던 ‘서른 즈음에’ 를 부르며 신나게 세계여행을 하는 포토몽타주 기법을 사용한 2D 애니메이션이다.

본인의 작품 <Chaos>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김광석을 실재 존재하고 있는 기타바이크 <Touch Me>를 타고 어딘가로 떠나보낸다. 떠나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낯익은 음악도 흘러나오고 김광석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그 음악은 원본과 다르다. 이 애니메이션을 접하는 관객은 <Chaos>가 시작되는 초반 도입에 집중하여 영상을 받아들인다. 초반도입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곡이 흐르고 김광석이 말을 한다.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관객의 상상을 통해서만 이미지를 그럴 것이다.

김광석 멘트- “마흔 살이 되면 하고 싶은 게 하나있어요/ 오토바이 하나사고 싶어요. 돈도 모아놨어요./ 애길 했더니 주변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데요. 다리가 닿겠니?/ 그거타고 세계일주하고 싶어요./ 좋겠죠?”

관객은 영상의 도입을 보고 현실에서 김광석이 하고 싶었던 꿈을 보여주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서른 즈음에’ 원곡과 다르게 비트가 들어가 좀 더 신나는 리듬으로 편곡된 곡이 흘러나온다. 기타바이크를 태우고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보내준다. 여기서 이곳저곳은 내가 세계를 여행하며 다녔던 곳을 선택하여 김광석의 오리지널 사운드에 비트박스의 리듬을 가미한 리믹스 곡 ‘서른 즈음에’ 배경으로 <혼돈>의 가상세계 휘젓고 다니는 것을 표현했다. 그 곡을 들으며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관객은 바이크를 타고 복잡한 현실을 뒤로하고 어딘지 모르는 세상을 찾아 한 마리의 나비처럼 훨훨 떠나는 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본인이 실제의 원본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받아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Chaos는 혼돈의 세계가 아니라 입을 벌려 노랠 부르는 김광석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김광석이 바라던 삶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자했던 김광석 그자체이며 본인의 일탈욕구를 가상의 세계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 Ⅲ. 결론

빠르게 변모하는 사회에서 현대인은 자유를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기를 살피는 행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사회가 만들어낸 대중문화라는 이름아래 여가시간마저 사회로 환원하고 결국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삶을 이루어가는 동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형식이라는 절차에 따라 자신을 현실과 타협해 나간다. 이러한 사회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을 인식했을 때는 억압이라는 불안감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인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를 원하며 사회구조의 틀에 맞추어진 현실의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표현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

본고 소재를 얻기 위한 활동의 범위가 기술적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의 전환에도 있다. 상상적인 사고를 꾸준히 재현한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감상자는 자유로운 예술영역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영역에서 나온 표현물은 나의 대체 이미지로 출발하지만 감상자의 주체로 삶과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나는 현대인의 정신적 혼란을 분석하고 음악적 일탈을 통한 자아의 모습을 인식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떨어질 수 없는 음악적인 감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이를 통해 잊고 있었던 감각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자극된 감성은 음악 속에서 자신과는 다른 자아를 발견할 수 있으며, 현실과는 다른 공간적 확장 개념으로 확장되는 현상과 측면을 다양한 각도로서 분석해보았다.

현대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일상에서 무의미하게 들던 대중가요 ‘서른 즈음에’ 조형적 표현 연구는 음악적 ‘일탈’이라는 감성을 찾아 현대사회에서 잃어가는 우리들의 정서를 회복시켜주도록 유도하였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작업한 작품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삼고 늘다양한 체험을 통해 작품에 대한 고민과 창의적 작품제작을 해 나가고자 한다. 대상을 바라보기에는 앞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견하는 유희를 기대해본다.

## 도판 목차



【도판-1】 2008 김광석 리포트전



【도판-2】 2008 김광석 리포트전



【도판-3】 2008 김광석 리포트전

## 참 고 문 헌

-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박종성 옮김 「생각의 탄생」, 에코의  
서재, 2007.
- 철학 아카데미 「철학 예술을 읽다」, 동녘, 2006
- 윤준성 「매체미학의 실제」, 브레인 코리아, 1997
-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 송고와 시물라크르의 이중주」, 아트북스, 2003
- 진중권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작가노트」, 휴머니스트, 2004
- 베르너 용, 장희창 옮김 「미메시스에서 시물라시옹까지」,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 이봉재, 김상환, 이기현, 오종환, 이승중, 정호근 「매체의 철학」, 나남출판, 1998,  
김종호 「역사철학」, 사상계사, 1963, p83
- 질 들뢰즈, 펠릭스가타리, 이정임, 윤정임 옮김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5
- 김상숙 「시각 예술 문화읽기」, 도서출판 재원, 2001
- 크리스티안 폴 「예술창작의 새로운 가능성 디지털 아트」, 시공아트, 2007
- 김이순 「현대조각의 새로운 지평」, 혜안, 2005
- 로잘랜드 크라우스 「현대조각의 흐름」, 도서출판 예경, 1997
- 박재완 「사회갈등과 이데올로기」, 나남, 1992
- 김창남 「대중음악과 노래운동, 청년문화」 한울아카데미, 2004
- 문체훈 「음유시인 가객 김광석과 떠나는 추억 여행」, 여름숲, 2006
- 임종진 「김광석 그가 그리운 오후에...」, 랜덤하우스, 2008

# ABSTRACT

## A Study on the Plastic Expression 'at the Time of 30 Years Old'

- Centering around My Work through Music by Kim,  
Kwang Suk -

Jung, Hye Kyung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to study and analyze main contents which tried to express the unfolding course of work and the manufacture method through my work, [Report of Kim, Kwawng Suk] announced in 2008.

Society and art has mutually supplementary relation. In modern society to be symbolized as science civilization, mechanical civilization, and material civilization, value of ultimate human life is being transfigured while taking serious view of material value than mental value. In addition, while emphasizing society system or functional nature or rationality of society structure excessively regardless of individual moral value, system is limiting the mental and bodily activity of human beings.

As society develops, society gets to restrict human beings all the

more, and it standardizes individuality peculiar to human beings. Thus, collective thinking disposition gets to be great. But, standardized thinking pattern arouse desire to try to deviate to moderns and came to aggravate crisis consciousness with psychological uneasiness and mental confusion. My work made moderns' desire to try to deviate into molding on the basis of it.

Images of montage form which appear in my work tried to express deviation consciousness. Through a person who existed really, 'popular singer, Kim, Kwang Suk' and his song 'at the time of 30 years old', I try to express new imaginary world image of deviation and describe the manufacture course and contents for it and try to clarify which plastic feature it has through this thesis. In addition, I groped how it is made into form with the image of deviation in my work and tried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human beings between actuality and dream and reality and falsehood that human beings feel with artistic approach through music.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I described study goal, study method and study category of this thesis. In the main discourse of chapter 2,

1. I described deviation image through popular song, 'at the time of 30 years old as groping of original form nature through soci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and as study background for [report of Kim, Kwang Suk] which was made into work.
2. I described reflection work through imaginary world, theoretical explanation of installed exhibition space, and meaning and features for musical deviation image.
3. I try to study and analyze manufacture technique, material

and manufacture intention of my work, [report of Kim, Kwang Suk].

Through groping of musical deviation and my main montage technique, I hope that they will be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discern work deeply all the more, and I presented the progression direction of my work.